

# <<내신 기출 국어 창비-하편>>

## <차례>

### 4. 소통하는 말과 글

- (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 1쪽 (15문제)
- (3) 세상을 바꾸는 토론 ----- 12쪽 (16문제)

### 5.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정읍사 / 십 년을 경영하여 ----- 19쪽 (45문제)
- (2) 춘향전 ----- 35쪽 (44문제)
- (3) 눈 (김수영) ----- 57쪽 (26문제)

### 6.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 69쪽 (61문제)
- (2)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 85쪽 (60문제)
- (3) 바람직한 국어 생활 ----- 105쪽 (7문제)

### 7.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

- (1)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111쪽 (11문제)
- (2)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 120쪽 (10문제)
- (3) 서로 만족하는 협상 ----- 127쪽 (9문제)

▶정답 -----133쪽

▶해설 -----135쪽

(버전: 2020.08.18.):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4. 소통하는 말과 글  
[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 목표**

-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생각 읽기**

교과서 183쪽

내가 어떤 매체에 어떤 종류의 글을 자주 쓰는지 생각해 보고, 글을 쓰면서 겪었던 즐겁거나 힘든 일을 말해 보자.

[예] 저는 평소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상을 짚막한 글로 표현하여 블로그에 자주 올립니다. 생각을 구체화하여 글로 쓰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제가 쓴 글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활동의 구성**

<b>글쓰기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면의 과학」을 읽고 글의 의미 구성 과정 이해하기</li> <li>•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블로그 글을 읽고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li> <li>• 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li> </ul>
----------------	---

<b>글쓰기의 실제</b>	<글쓰기의 이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	--

**활동 소개**

- <글쓰기의 이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의 의미 구성 과정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 책임감 있게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등을 알아봄.
- <글쓰기의 실제>에서는 <글쓰기의 이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봄.

**글쓰기의 단계**

계획하기	글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을 분석함.
생성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쓰기 맥락에 맞는 자료를 선별함.
조직하기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을 조직함.
표현하기	적절한 표현 방법과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씀.
고쳐쓰기	글 전체 수준에서부터 단어 수준에 이르기까지 쓰기 맥락과 맞춤법 등을 고려하여 수정함.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 태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

개방성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쌍방향성	생각을 쉽고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음.
익명성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음.
전파력과 영향력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급속하게 전파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의 태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



-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지 않고,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힘.
- 내용을 왜곡,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악의가 담긴 댓글을 달지 않음.

**제재 정리**

① 「라면의 과학」의 구성

처음	컵라면의 특징 및 문제 제기
중간	대류 현상과 관련된, 컵라면의 면에 담긴 원리
끝	컵라면의 '3분'에 담긴 화학적 비밀

② 「라면의 과학」의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주제	컵라면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컵라면의 면에 숨겨 있는 과학적 원리를 병렬적으로 설명함.</li> <li>• 컵라면과 봉지 라면을 대조하여 컵라면의 특징을 부각함.</li> </ul>

③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통 표지판 통장」의 구성

처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주의 안내 표시 등장
중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
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사용 자제 촉구

④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통 표지판 통장」의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주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제 촉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자료와 통계 자료를 제시해 이해를 도움.</li> <li>• 링크, 댓글 등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 줌.</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1분 만에, 아니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위쪽은 면이 짙어져 뽀뽀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뽀뽀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신드망고등학교 (사)**

1. 윗글의 표현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서 독자의 관심을 끈다.
- ②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 다.
- ③ 컵라면과 봉지 라면의 대조를 통해서 컵라면의 특징을 부각한다.
- ④ 컵라면의 면발에 숨겨 있는 과학적 원리를 병렬적으로 설명한다.
- ⑤ '대류 현상'과 같은 과학적 용어는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신드망고등학교 (사)**

2. 윗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컵라면 면발의 제조 과정은?
- ②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 ③ 컵라면의 조리 시간이 3분인 이유는?
- ④ 컵라면 면발에 더 많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 ⑤ 컵라면이 봉지 라면보다 빨리 불어 버리는 이유는?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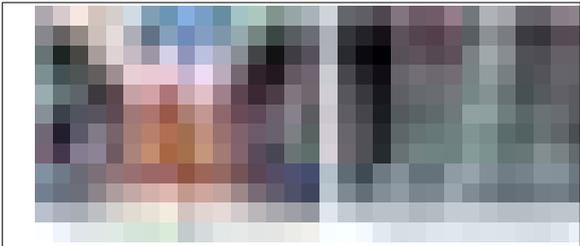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얼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둘비둘**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찌찌.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롬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신드림고등학교 (서울)**

3. 밑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 ②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안내 표지판을 늘려야 함을 주

장하고 있다.

- ③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 간의 대화가 줄어들음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도만고등학교 (사)**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글쓴이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른 나라의 사고 예방 대책을 시각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④ 글쓴이와 독자들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인용한 자료의 출처인 누리집의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신도만고등학교 (사)**

5. <보기>는 윗글에서 책임감 있게 글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방안을 서술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국에 대한 자료의 ( ㉠ )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 ㉡ )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며 내용을 ( ㉢ )하여 제시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예상 독자: 컵라면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사람

\*목적: 컵라면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라면의 과학 중에서]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1분 만에, 아니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위쪽은 면이 꼭 짜여 뻑뻑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뻑뻑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학원고등학교 (인신)**

7. 윗글을 쓰기 전 글쓴이가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부착물의 상황을 알아본다.
- ② 참고자료를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다.
- ③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한다.
- ④ 스마트폰 사용과 교통사고 발생률과의 관계를 조사해 본다.
- 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나라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을 비교해 본다.

**학원고등학교 (인신)**

8. <보기>에 따라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언어 예절을 잘 지켜 글을 썼는가? ㉣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혔는가? ㉤ 왜곡, 과장하거나 축소한 내용은 없는가?

- ① ㉠: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하기 쉬었어.
- ② ㉡: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에 대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잘 서술하고 있어.
- ③ ㉢: 댓글에서 글쓰기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쓰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어.
- ④ ㉣: 자료들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여 신뢰성이 높아.
- ⑤ ㉤: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는 과장된 부분은 사실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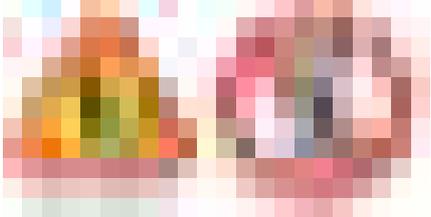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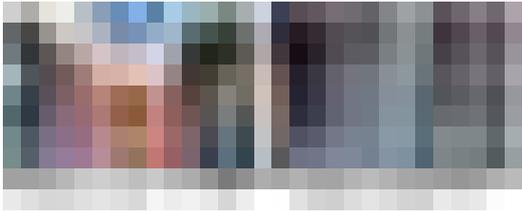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자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콩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얼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인가요?

↳ **비빔비빔**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요.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물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통계 자료인가요?

**신인평양기출문제 (11)**

9. 다음 중 윗글을 작성할 때 글쓴이가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표지판 설치를 예로 들어야겠어
- ②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 요소로 전달력을 높이자
- ③ 참고 사이트의 링크를 제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 ④ 연령대별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넣어 △△역의 표지판 설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자
- 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시의 표지판 설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자

**신인평양기출문제 (12)**

10. 다음 중 댓글을 참고한 후 글쓴이가 보일 반응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의 출처를 밝힌다.  
 ㄴ. 전체 교통사고 중 스마트폰 관련 사고의 비율을 조사하여 수정한다.  
 ㄷ.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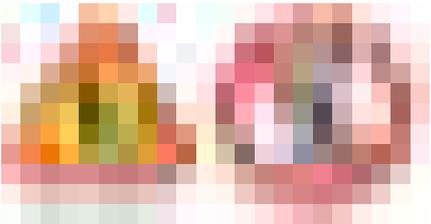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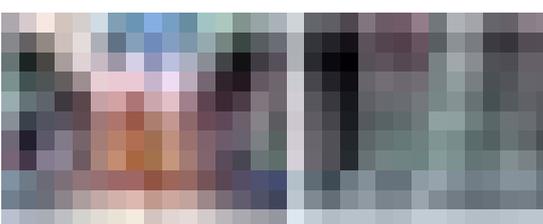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①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②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③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④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두산고교 (2019)**

11. 밑줄 친 ㉠-㉤에서 나타난 표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 제시로 글을 시작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다.
- ③ ㉢: 스마트폰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나타난 표현이다.
- ④ ㉣: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 ⑤ ㉤: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두산고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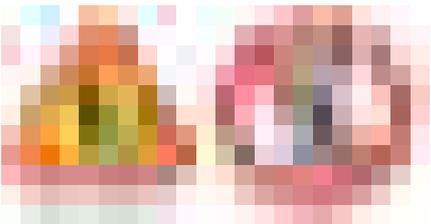
12. 위 글에서 드러나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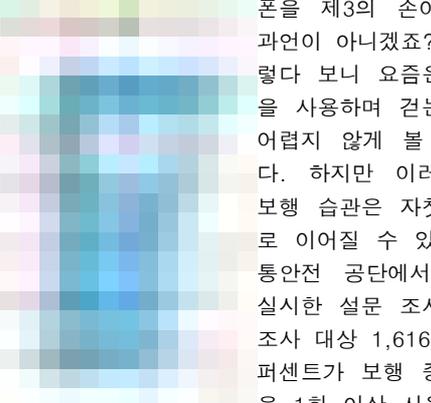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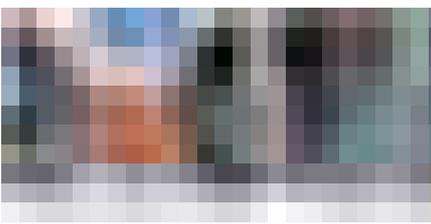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엄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블비블**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쫓쫓.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클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인간심리 (인간)**

13. 밑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군.
- ②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군.
- ③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활성화되어 있군.
- ④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군.
- 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도구가 되었군.

**인간상징고 (인간)**

14. 뒷글에서 알 수 있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모두 밝혀 독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얻고 있다.
- ② 시각 자료 및 사례를 통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③ 관련된 인터넷주소를 연결하여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④ 글쓴이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생각을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 ⑤ 글쓴이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나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인간상징고 (인간)**

15. <보기>의 ㉠~㉥는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구상한 내용이다. ㉠~㉥ 중 글쓰기에 반영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찾아 보아야겠어.
- ㉡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교통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겠어.
- ㉢ 내가 사는 ○○시에서 스마트폰 주 사용층의 연령대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어딘지 알아 봐야겠어.
-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끝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4. 소통하는 말과 글  
[3] 세상을 바꾸는 토론

소단원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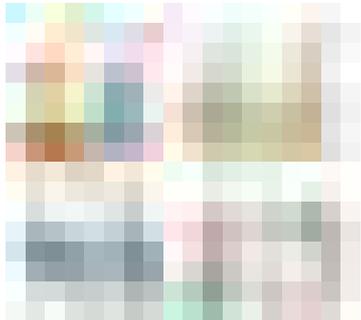
**학습 목표**

-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생각 엮기**

교과서 197쪽

다음 중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예]

- 토론이 필요한 상황: ㉠(㉡는 토의, ㉢는 대화에 적절한 상황임.)
- 그 까닭: ㉠은 교복 광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말하기,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말하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는 어떤 공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는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상을 바꾸는 토론」 활동의 구성**

<b>토론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투표제'와 관련된 글을 읽고 이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논제 도출하기</li> <li>• '의무 투표제'를 찬성, 반대하는 측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li> <li>• '의무투표제' 찬성 입론과 반대 입론의 논증 구조 파악하기</li> </ul>
---------------	--

<b>토론의 실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토론의 이해&gt;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 정책 논제를 만들고 실제 정책 토론을 수행하기</li> <li>• 토론 과정을 적절성, 타당성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li> </ul>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로 실현된다.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거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 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치른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퍼센트대로 나타났다.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0퍼센트대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유 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또 의무 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이므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 계층에 더욱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 교육이나 모의 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 투표제의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론(新論) (시)**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의무투표제 도입 반대 측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의무투표제 도입 찬성 측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선거투표제의 종류와 의무투표제 도입 주장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무투표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론(新論) (시)**

2. 밑글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기>를 고려하여 정책토론을 위한 논제를 만들어 서술하십시오.

<보기>

[정책 논제의 조건]

- \*평서문의 형태도 긍정적인 진술이어야 한다.
- \*기존 질서나 상태를 변화하려는 요구를 담은 진술이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뚜렷한 하나의 주장만을 담은 진술이어야 한다.

**신론(新論) (시)**

3. 밑글에서 다음의 필수 쟁점에 대해 찬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선 효과 및 이익이 있는가?

- ① 정치적인 소외 계층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 ②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③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④ 시민 교육이나 모의 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⑤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                    ㉠                    )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                    ㉡                    )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이다. 주장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내세우는 의견이다. 이유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념이나 생각이며, 근거는 주장과 이유를 지지해 주는 자료로서 입증된 일반적인 원리, 객관적 사례, 과학적인 연구 결과, 통계 자료, 권위자나 전문가의 견해 등 실제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말한다.

**지문(2기)**

4. 위글의 논증 구조에서 ㉠, ㉡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지문(2기)**

5. [A]의 논증에서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의무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무 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5.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정읍사/십 년을 경영하여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 목표**

-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생각 엮기**

교과서 223쪽

다음은 고전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창작된 대중가요이다. 노래를 들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자.

[예]

- 원문을 글로 볼 때와 달리 노래로 들으니 입을 잃은 슬픔이 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져.
- 청산에 살고 싶다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그리고 왜 시름이 많다고 할까?

정읍사

교과서 224쪽

**「정읍사」의 구성**

기	(1~4행) 달님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
서	(5~7행)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함.
결	(8~11행)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램.

**제제 소개**

- 백제 문화권의 노래
-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 궁중에서 주로 향유되다가, 조선 성종 때에 이르러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됨.
- 형식 측면에서 한국 시가 문학의 원류에 해당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이별과 기다림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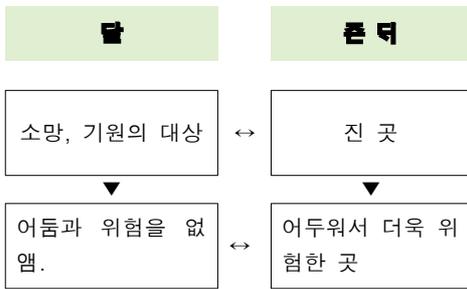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망부가
성격	기원적, 서정적, 여성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li> <li>•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국문 노래로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여 줌.</li> <li>•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나타냄.</li> <li>• 의인법, 돈호법, 영탄법의 수사법을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함.</li> </ul>

**시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

시구	화자의 정서
돌하 노피곰 도드샤 /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 시라	소원, 기원, 간절함
즌 디롤 드디올세라, 내 가는 디 점그롤세라	걱정, 염려, 불안

**바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



**'즌 디'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성격**

상징적 의미	화자의 성격
위험한 곳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인 여인
다른 여성, 남편을 유혹하는 존재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지 않을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

**[참고] 「정읍사」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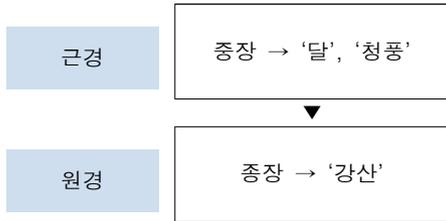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둠과 위험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li> <li>• 시적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li> <li>• 남편의 길을 비춰 준다는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 주는 존재</li> </ul>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소망과 기원의 대상임.

**십 년을 경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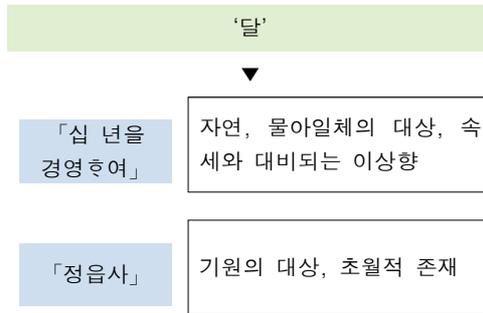
교과서 225쪽

<p><b>작가 소개 송순(1493~158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li> <li>• 호는 면앙정</li> <li>• 말년에 고향인 전남 담양에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강호가도 시가를 여러 편 남김.</li> <li>• 주요 작품으로는 「면앙정가」, 「오륜가」 등이 있고, 저서로는 『기촌집』이 있음.</li> </ul>	<p><b>「십 년을 경영하여」의 구성</b></p> <table border="1"> <tr> <td>초장</td> <td>초려 삼간을 지음.</td> </tr> <tr> <td>중장</td> <td>‘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td> </tr> <tr> <td>종장</td> <td>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td> </tr> </table>	초장	초려 삼간을 지음.	중장	‘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	종장	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						
초장	초려 삼간을 지음.												
중장	‘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												
종장	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												
<p><b>제지 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사대부의 자연 친화적 가치관을 잘 드러낸 시</li> <li>• 자연과 함께하는 물아일체적 삶과 안분지족의 생활 태도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호방한 조선 전기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음.</li> </ul>	<p><b>핵심 정리</b></p> <table border="1"> <tr> <td>갈래</td> <td>평시조, 정형시, 서정시</td> </tr> <tr> <td>성격</td> <td>풍류적, 전원적, 낭만적</td> </tr> <tr> <td>주제</td> <td>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td> </tr> <tr> <td>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td> </tr> </table>	갈래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주제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갈래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주제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p><b>작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b></p> <table border="1"> <tr> <td>안분지족 (安分知足)</td> <td>▶</td> <td>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td> </tr> <tr> <td>안빈낙도 (安貧樂道)</td> <td>▶</td> <td>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td> </tr> <tr> <td>강호한정 (江湖閑情)</td> <td>▶</td> <td>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td> </tr> <tr> <td>음풍농월 (吟風弄月)</td> <td>▶</td> <td>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td> </tr> </table>	안분지족 (安分知足)	▶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	안빈낙도 (安貧樂道)	▶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강호한정 (江湖閑情)	▶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	음풍농월 (吟風弄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	<p><b>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b></p> <p style="text-align: center;"><b>‘나, 달, 청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과 ‘청풍’과 같은 자연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그려짐.</li> <li>•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경계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p>
안분지족 (安分知足)	▶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											
안빈낙도 (安貧樂道)	▶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강호한정 (江湖閑情)	▶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											
음풍농월 (吟風弄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											

**시상 전개 방식**



**「십 년을 경영하여」와 「정읍사」에 공통적으로 쓰인 소재**



**시조 감례의 변과 양상**

**① 사실시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 귀 수들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청구영언』

**② 「십 년을 경영하여」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비교**

	십 년을 경영하여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b>공통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장,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li> <li>• 작가의 소망과 지향이 담김.</li> </ul>	
<b>차이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 사대부가 지음.</li> <li>• 내용을 추상적·관념적으로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형식임.</li> <li>• 작자층을 모름.</li> <li>•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돌하 노피곰 도드샤
- 어귀야 머리곰 ㉡ 비취오시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 저재 ㉢ 녀러 신고요
- 어귀야 ㉣ 준 디롤 ㉤ 드디올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어느이다 ㉥ 노코시라
- 어귀야 내 가논 디 ㉦ 점그롤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계양고등학교 (인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한 상황에서 희망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 ② 불확실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물에 대한 감상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세속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초월적 대상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렴구의 반복으로 간절함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안정된 형태감을 보이고 있다.
- ③ 특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3음보가 반복되는 운율로 시조의 원형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청자가 일관되지 않고 변화를 보인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3. (가),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뺨고 성(城) 안헤 담 뺨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櫃)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비목 외결새에 용(龍)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줌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랴.

- ① (나), (다)와 달리 <보기>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나), <보기>와 달리 (다)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다.
- ③ (다)는 <보기>와 달리 문제 해결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④ (다)와 <보기>는 (나)와 달리 조선 후기의 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⑤ (다)와 <보기>는 모두 일상적 소재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4.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 ② (나)에는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 ③ (다)에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어.
- ④ (다)에서 가슴에 창을 내는 행위를 통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염원을 보이고 있어.
- ⑤ (다)에는 나열을 통해 답답한 상황을 해학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5. (나)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말이 없는 청산이요, 모양 없이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바람이요, 주인이 없는 밝은 달이로다.  
이 중에 병이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 ① 자연물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화자의 상황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의 몰아일체(物我一體)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④ 자연물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6. '㉠:㉡'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태양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成)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중략)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늘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① 달빛 : 밤
- ② 태양 : 달빛
- ③ 봄 : 꽃덤불
- ④ 분수 : 꽃덤불
- ⑤ 태양을 등진 곳 : 혈어진 성터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7. ㉠~㉢ 중 그 주체가 동일한 것을 모두 찾고, 주체가 누구(무엇)인지 밝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 기>

A~B를 채워 다음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형식: 주체가 동일한 것은 ( A )이며, 그 주체는 ( B )이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풍류적 삶이 나타나고 있다.
- ② 화자의 청빈한 삶이 나타나고 있다.
- ③ 화자는 안분지족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연친화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임아 내 임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임아 임아 내 임아,  
그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입을 어이 할꼬.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나)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 신고요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광고고등학교 (경기)**

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노래는 정읍의 사람 하나가 행상을 떠난 후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처가 산에 올라 멀리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진흙물에 빠지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를 불렀다 한다.

- ① 화자는 '달'이 남편에게 닥칠 어둠과 위험을 없애주는 존재라고 믿고 있군.
- ② 남편이 행상인이라는 사실은 '저재'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
- ③ '즌 디'는 어두운 곳으로, 남편이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군.
- ④ '어느이다 노코시라'를 통해 남편이 힘든 짐을 놓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
- ⑤ '점그를세라'에서 화자는 남편 없이 살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염려하고 있어.

**광고고등학교 (경기)**

1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대조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처한 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광고고등학교 (경기)**

11. (가), (나)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엇그제 젊었더니 허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 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늙어야 서러운 말씀 허자니 목을 맨다. 부모님이 낳으시고 이 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베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허더니,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月下)의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잇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어름 디되는 듯, 십오세 십육세 겨우 지나 아름다운 모습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허앗더니, 세월이 훌훌하고 조물이 시샘하여, 봄 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중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임이 사랑하라. 스스로 참고허니' 누구를 원망허리.  
<중략>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허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로 무슨 약수가 려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새 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의 서론 사람 수업다 허려니와, 박명 훈 흥안이야 날 가트니 또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여라.

-허난설헌, '규원가'

- ① (가)와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가)와 <보기>에는 모두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와 대상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보기>에는 화자의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창비-하편>>

## <차례>

### 4. 소통하는 말과 글

- (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 1쪽 (15문제)
- (3) 세상을 바꾸는 토론 ----- 12쪽 (16문제)

### 5.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정읍사 / 십 년을 경영하여 ----- 19쪽 (45문제)
- (2) 춘향전 ----- 35쪽 (44문제)
- (3) 눈 (김수영) ----- 57쪽 (26문제)

### 6.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 69쪽 (61문제)
- (2)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 85쪽 (60문제)
- (3) 바람직한 국어 생활 ----- 105쪽 (7문제)

### 7.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

- (1)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111쪽 (11문제)
- (2)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 120쪽 (10문제)
- (3) 서로 만족하는 협상 ----- 127쪽 (9문제)

▶정답 -----133쪽

▶해설 -----135쪽

(버전: 2020.08.18.):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4. 소통하는 말과 글  
[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 목표**

-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생각 엮기**

교과서 183쪽

내가 어떤 매체에 어떤 종류의 글을 자주 쓰는지 생각해 보고, 글을 쓰면서 겪었던 즐겁거나 힘든 일을 말해 보자.

[예] 저는 평소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상을 짚막한 글로 표현하여 블로그에 자주 올립니다. 생각을 구체화하여 글로 쓰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제가 쓴 글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활동의 구성**

<b>글쓰기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면의 과학」을 읽고 글의 의미 구성 과정 이해하기</li> <li>•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블로그 글을 읽고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li> <li>• 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li> </ul>
----------------	---

<b>글쓰기의 실제</b>	<글쓰기의 이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	--

**활동 소개**

- <글쓰기의 이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의 의미 구성 과정과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 책임감 있게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등을 알아봄.
- <글쓰기의 실제>에서는 <글쓰기의 이해>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정에 따라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봄.

**글쓰기의 단계**

계획하기	글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쓰기 맥락을 분석함.
생성하기	자료를 수집하고 쓰기 맥락에 맞는 자료를 선별함.
조직하기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내용을 조직함.
표현하기	적절한 표현 방법과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씀.
고쳐쓰기	글 전체 수준에서부터 단어 수준에 이르기까지 쓰기 맥락과 맞춤법 등을 고려하여 수정함.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 태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

개방성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쌍방향성	생각을 쉽고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음.
익명성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음.
전파력과 영향력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급속하게 전파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의 태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



-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지 않고,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힘.
- 내용을 왜곡,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악의가 담긴 댓글을 달지 않음.

**제재 정리**

① 「라면의 과학」의 구성

처음	컵라면의 특징 및 문제 제기
중간	대류 현상과 관련된, 컵라면의 면에 담긴 원리
끝	컵라면의 '3분'에 담긴 화학적 비밀

② 「라면의 과학」의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주제	컵라면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컵라면의 면에 숨겨 있는 과학적 원리를 병렬적으로 설명함.</li> <li>• 컵라면과 봉지 라면을 대조하여 컵라면의 특징을 부각함.</li> </ul>

③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통 표지판 통장」의 구성

처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주의 안내 표시 등장
중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
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사용 자제 촉구

④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통 표지판 통장」의 핵심 정리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주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제 촉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 자료와 통계 자료를 제시해 이해를 도움.</li> <li>• 링크, 댓글 등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 줌.</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1분 만에, 아니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위쪽은 면이 짝짜여 뽀뽀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뽀뽀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신드림고등학교 (사)**

1. 윗글의 표현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서 독자의 관심을 끈다.
- ②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 다.
- ③ 컵라면과 봉지 라면의 대조를 통해서 컵라면의 특징을 부각한다.
- ④ 컵라면의 면발에 숨겨 있는 과학적 원리를 병렬적으로 설명한다.
- ⑤ '대류 현상'과 같은 과학적 용어는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신드림고등학교 (사)**

2. 윗글을 읽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컵라면 면발의 제조 과정은?
- ②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 ③ 컵라면의 조리 시간이 3분인 이유는?
- ④ 컵라면 면발에 더 많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 ⑤ 컵라면이 봉지 라면보다 빨리 불어 버리는 이유는?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 **윤주 얼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 **비둘비둘**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찝찝.
-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 롬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신드림고등학교 (서울)**

3. 밑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 ②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안내 표지판을 늘려야 함을 주

장하고 있다.

- ③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 간의 대화가 줄어들음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신도만고등학교 (사)**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글쓴이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른 나라의 사고 예방 대책을 시각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④ 글쓴이와 독자들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인용한 자료의 출처인 누리집의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신도만고등학교 (사)**

5. <보기>는 윗글에서 책임감 있게 글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방안을 서술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국에 대한 자료의 ( ㉠ )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 ㉡ )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며 내용을 ( ㉢ )하여 제시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예상 독자: 컵라면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사람

\*목적: 컵라면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라면의 과학 중에서]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1분 만에, 아니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위쪽은 면이 꼭 짜여 뻑뻑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뻑뻑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분이 아니라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인사)**

6. 작문 상황과 윗글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주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컵라면과 관련된 경험으로 화제를 제시해야지.
- ② 컵라면이 익는 과정을 과학자의 설명을 인용하여 설명할 계획이야.
- ③ 컵라면 면발의 특징을 과학적 지식과 연관 지어 설명할 생각이야.
- ④ 컵라면과 봉지 라면을 대조하여 컵라면의 특징을 부각해 볼 생각이야.
- ⑤ '알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컵라면의 '3분의 비밀'을 설명해야겠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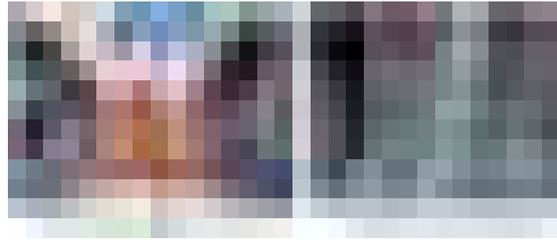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덧글 8 공감 20

**콩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엄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틀비틀**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쫓쫓.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물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학원고등학교 (인신)**

7. 윗글을 쓰기 전 글쓴이가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부착물의 상황을 알아본다.
- ② 참고자료를 연결하여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다.
- ③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한다.
- ④ 스마트폰 사용과 교통사고 발생률과의 관계를 조사해 본다.
- 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나라 정책과 우리나라 정책을 비교해 본다.

**학원고등학교 (인신)**

8. <보기>에 따라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 언어 예절을 잘 지켜 글을 썼는가? ㉣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혔는가? ㉤ 왜곡, 과장하거나 축소한 내용은 없는가?

- ① ㉠: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하기 쉬었어.
- ② ㉡: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에 대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잘 서술하고 있어.
- ③ ㉢: 댓글에서 글쓰기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쓰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어.
- ④ ㉣: 자료들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여 신뢰성이 높아.
- ⑤ ㉤: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라는 과장된 부분은 사실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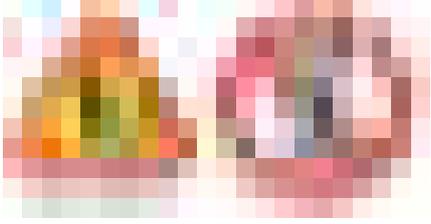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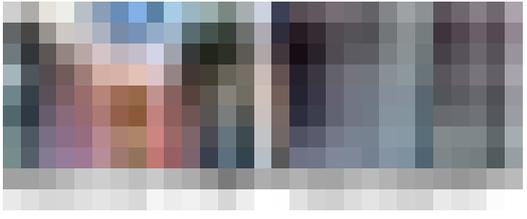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자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콩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얼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인가요?

↳ **비빔비빔**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못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요.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물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통계 자료인가요?

**신인평양기출문제 (11)**

9. 다음 중 윗글을 작성할 때 글쓴이가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표지판 설치를 예로 들어야겠어
- ②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 요소로 전달력을 높이자
- ③ 참고 사이트의 링크를 제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 ④ 연령대별 스마트폰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넣어 △△역의 표지판 설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자
- 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시의 표지판 설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자

**신인평양기출문제 (12)**

10. 다음 중 댓글을 참고한 후 글쓴이가 보일 반응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의 출처를 밝힌다.  
 ㄴ. 전체 교통사고 중 스마트폰 관련 사고의 비율을 조사하여 수정한다.  
 ㄷ.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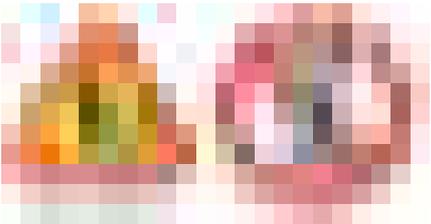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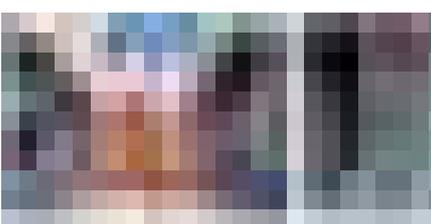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①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②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③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④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두산고교 (2013)**

11. 밑줄 친 ㉠-㉤에서 나타난 표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 제시로 글을 시작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다.
- ③ ㉢: 스마트폰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나타난 표현이다.
- ④ ㉣: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 ⑤ ㉤: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두산고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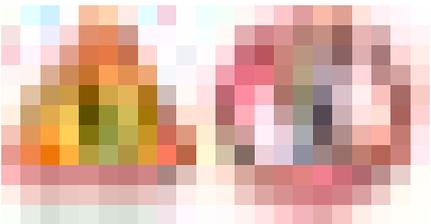
12. 위 글에서 드러나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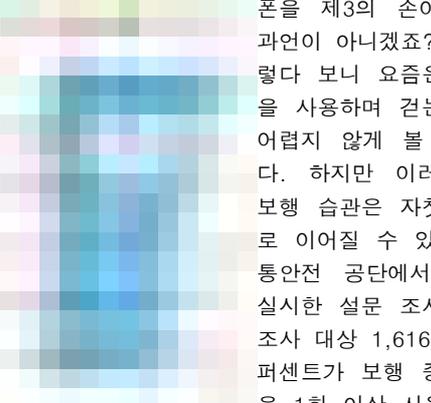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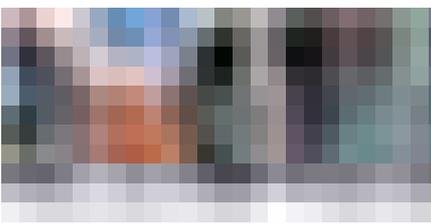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전 지킴이의 블로그  
블로그 | 독서 | 여행 | 정보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 등장

제가 사는 ○○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역 등 다섯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퍼센트로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에스엔에스(SNS)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퍼센트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 한 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퍼센트 보행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 100퍼센트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http://www.ts2020.kr> 교통안전 공단 누리집 참조함.)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표지판 ▲ 벨기에의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시 누리집에서 가져옴.)

댓글 8 공감 20

**종달새** 비슷한 주제로 수행 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 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소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윤주 엄마**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사막여우**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 **비블비블** 찾아보니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쫓쫓.

↳ **안전 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클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인간심리 (인간)**

13. 밑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군.
- ②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군.
- ③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활성화되어 있군.
- ④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군.
- 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도구가 되었군.

**인간상징고 (인간)**

1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모두 밝혀 독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얻고 있다.
- ② 시각 자료 및 사례를 통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③ 관련된 인터넷주소를 연결하여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④ 글쓴이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생각을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 ⑤ 글쓴이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나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인간상징고 (인간)**

15. <보기>의 ㉠~㉥는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구상한 내용이다. ㉠~㉥ 중 글쓰기에 반영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찾아 보아야겠어.
- ㉡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교통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야겠어.
- ㉢ 내가 사는 ○○시에서 스마트폰 주 사용층의 연령대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어딘지 알아 봐야겠어.
-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끝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4. 소통하는 말과 글  
[3] 세상을 바꾸는 토론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 목표**

-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생각 엮기**

교과서 197쪽

다음 중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예]

- 토론이 필요한 상황: ㉠(㉡는 토의, ㉢는 대화에 적절한 상황임.)
- 그 까닭: ㉠은 교복 광고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말하기,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는 말하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는 어떤 공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는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상을 바꾸는 토론」 활동의 구성**

<b>토론의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투표제'와 관련된 글을 읽고 이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논제 도출하기</li> <li>• '의무 투표제'를 찬성, 반대하는 측의 필수 쟁점 파악하기</li> <li>• '의무투표제' 찬성 입론과 반대 입론의 논증 구조 파악하기</li> </ul>
---------------	--

<b>토론의 실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토론의 이해&gt;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 정책 논제를 만들고 실제 정책 토론을 수행하기</li> <li>• 토론 과정을 적절성, 타당성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li> </ul>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로 실현된다.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거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 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치른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퍼센트대로 나타났다.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0퍼센트대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유 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또 의무 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이므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 계층에 더욱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 교육이나 모의 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 투표제의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론(新論) (시)**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의무투표제 도입 반대 측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의무투표제 도입 찬성 측의 주장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선거투표제의 종류와 의무투표제 도입 주장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의무투표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론(新論) (시)**

2. 밑글에 나타난 문제점과 <보기>를 고려하여 정책토론을 위한 논제를 만들어 서술하십시오.

<보기>

[정책 논제의 조건]

- \*평서문의 형태도 긍정적인 진술이어야 한다.
- \*기존 질서나 상태를 변화하려는 요구를 담은 진술이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뚜렷한 하나의 주장만을 담은 진술이어야 한다.

**신론(新論) (시)**

3. 밑글에서 다음의 필수 쟁점에 대해 찬성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선 효과 및 이익이 있는가?

- ① 정치적인 소외 계층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 ②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 ③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④ 시민 교육이나 모의 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⑤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                    ㉠                    )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                    ㉡                    )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A]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이다. 주장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내세우는 의견이다. 이유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념이나 생각이며, 근거는 주장과 이유를 지지해 주는 자료로서 입증된 일반적인 원리, 객관적 사례, 과학적인 연구 결과, 통계 자료, 권위자나 전문가의 견해 등 실제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말한다.

**지문 1 (2가)**

4. 위글의 논증 구조에서 ㉠, ㉡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지문 2 (2가)**

5. [A]의 논증에서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의무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무 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친안정양고등학교 (31)**

6. 토론자들이 위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실제 총선의 투표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준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무 투표제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려 주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③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조사하고, 강제성을 띠는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 ④ 의무 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한다.
- ⑤ 의무 투표제를 실시한 나라의 구체적인 투표율 변화를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한다.

**친안정양고등학교 (31)**

7. 밑글은 토론 과정의 말하기이다. 토론 과정에 대해 다음 ㉠~㉢을 서술하시오.

\*밑글은 토론 과정에서 찬성 측 (     ㉠     )에 해당한다.  
\*밑글의 주장은 (             ㉡             )이다.

- ㉠:
-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친안정양고등학교 (31)**

8. 필수 쟁점은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을 말한다.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빈칸 ㉣~㉥을 채우시오.

( ㉣ )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가? *문제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한가?
문 제 의 해 결 및 ( ㉤ )	*제시한 해결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효 과 및 ( ㉥ )	*제시한 해결 방안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가? *정책 시행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이익이 큰가?

- ㉣: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의무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무 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나) 저희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투표율이 낮은 것도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의사 표현 방식이므로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무 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투표 시간의 연장,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 지원, 수형자와 같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등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투표 불참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 투표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라이셔는 “의무 투표제 아래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거의 질을 높이면 자유 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무 투표제는 시행하여 얻는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인간중심교육관 (인선)**

9.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찬성측 입론, (나)는 반대측 입론이다.
- ② (가)는 외국의 사례를 (나)는 대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논제의 배경과 용어 정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 ⑤ 이 토론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논제이다.

**인간중심교육관 (인선)**

10. 의무 투표제에 대한 실제 토론을 벌인다고 가정할 때 토론자, 사회자, 청중의 역할과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론자: 필수 쟁점을 기준으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 ② 사회자: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③ 청중: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하면서 각 입장의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한다.
- ④ 찬성 측 토론자: 논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과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 ⑤ 반대 측 토론자: 찬성 측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의무 투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근거를 들어 발언한다.

**인간중심교육관 (인선)**

11. (가)의 논증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장: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한다.

쟁점 논증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및 실행 가능성	효과 및 이익
이유	①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투표율이 낮아 국민들이 선출된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다.	②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 만든다.
근거	③우리나라 지난 총선 투표율을 살필 때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벨기에와 호주는 의무 투표제 도입 후 투표율을 90%대로 높였다.  ④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를 확대하면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다.	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차명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독자이자기공용학습 (30분)**

12. 토론의 논제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 ②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 ③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 ④ 전자 발찌 제도는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
- ⑤ 선거권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자이자기공용학습 (30분)**

13. <보기>는 토론의 용어와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대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는 학생은?

<보기>

소영: 논제란 토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리, 즉 토론의 주제나 제목을 뜻해.

제인: 일론이란 토론의 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을 펼치는 것을 얘기하지.

영로: 교차조사 단계에서는 상대측 주장의 모순, 자료나 논리 전개상 문제를 제기하며 확인 신문을 해.

민혁: 숙의 단계는 반론을 하기 전에 양측이 각각 자기 측 의견을 협의하는 시간이야.

석로: 반론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입론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며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수 없어.

- ① 소영
- ② 제인
- ③ 영로
- ④ 민혁
- ⑤ 석로

**독자이자기공용학습 (30분)**

1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보기>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으려는 목적의 말하기 형식이다.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말하기 과정이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논을 통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 ㉠ ) 말하기라고도 한다. 반면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반대 측이 각각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의 정당함과 상대방 의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말하기 형식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 ㉡ ) 말하기라고도 한다.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표는 민주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 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 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0퍼센트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의무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벨기에는 1893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여 30~40퍼센트였던 투표율을 90퍼센트대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십 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퍼센트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회원

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무 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독자이해활동 (15)**

1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논제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② 첫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활용하여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③ 두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위국의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호주의 투표율이 10년간 상승한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도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한다면 투표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세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이 글을 통해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논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독자이해활동 (16)**

16.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각각 두 가지 쓰시오.

<보기>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는 토론은 감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한다. 준언어적 표현이란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에 기준하며 언어의 성격을 반 정도만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시 활용되는 표현을 말한다. 준언어적 표현에는 ( ㉠ ) 등이 있다.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는 아닌 언어 외적 표현이지만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 ㉡ ) 등이 있다.

- ㉠:
- ㉡:

- 끝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5.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정읍사/십 년을 경영하여

소단원 핵심 정리

**학습 목표**

-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생각 엮기**

교과서 223쪽

다음은 고전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창작된 대중가요이다. 노래를 들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자.

[예]

- 원문을 글로 볼 때와 달리 노래로 들으니 입을 잃은 슬픔이 보다 더 절절하게 느껴져.
- 청산에 살고 싶다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그리고 왜 시름이 많다고 할까?

정읍사

교과서 224쪽

**「정읍사」의 구성**

기	(1~4행) 달님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
서	(5~7행) 남편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함.
결	(8~11행)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램.

**제제 소개**

- 백제 문화권의 노래
-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 궁중에서 주로 향유되다가, 조선 성종 때에 이르러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됨.
- 형식 측면에서 한국 시가 문학의 원류에 해당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이별과 기다림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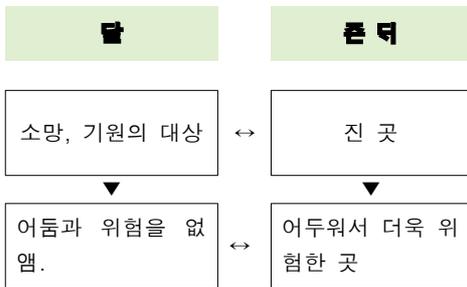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망부가
성격	기원적, 서정적, 여성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li> <li>•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국문 노래로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보여 줌.</li> <li>•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나타냄.</li> <li>• 의인법, 돈호법, 영탄법의 수사법을 반복하여 정서를 강조함.</li> </ul>

**시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

시구	화자의 정서
돌하 노피곰 도드샤 /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 시라	소원, 기원, 간절함
존 디롤 드디올세라, 내 가는 디 점그롤세라	걱정, 염려, 불안

**바음과 어둠의 대립적 이미지**



**'존 디'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성격**

상징적 의미	화자의 성격
위험한 곳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인 여인
다른 여성, 남편을 유혹하는 존재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지 않을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

**[참고] 「정읍사」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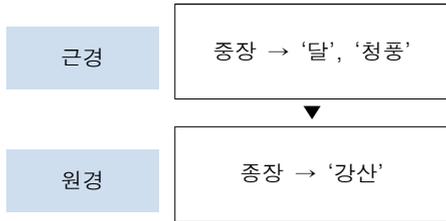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둠과 위험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존재</li> <li>• 시적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li> <li>• 남편의 길을 비춰 준다는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밝혀 주는 존재</li> </ul>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소망과 기원의 대상임.

**십 년을 경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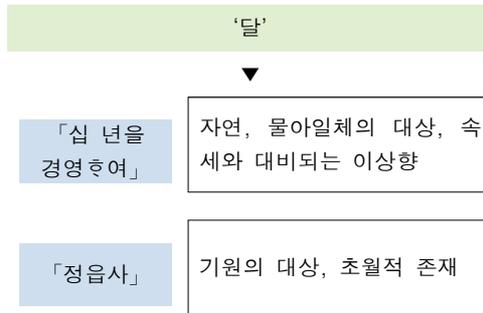
교과서 225쪽

<p><b>작가 소개 송순(1493~158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li> <li>• 호는 면앙정</li> <li>• 말년에 고향인 전남 담양에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강호가도 시가를 여러 편 남김.</li> <li>• 주요 작품으로는 「면앙정가」, 「오륜가」 등이 있고, 저서로는 『기촌집』이 있음.</li> </ul>	<p><b>「십 년을 경영하여」의 구성</b></p> <table border="1"> <tr> <td>초장</td> <td>초려 삼간을 지음.</td> </tr> <tr> <td>중장</td> <td>‘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td> </tr> <tr> <td>종장</td> <td>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td> </tr> </table>	초장	초려 삼간을 지음.	중장	‘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	종장	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						
초장	초려 삼간을 지음.												
중장	‘나, 달, 청풍’이 각각 한 간씩 맡음. → 근경												
종장	강산을 둘러 두고 보려 함. → 원경												
<p><b>제지 소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사대부의 자연 친화적 가치관을 잘 드러낸 시</li> <li>• 자연과 함께하는 물아일체적 삶과 안분지족의 생활 태도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호방한 조선 전기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음.</li> </ul>	<p><b>핵심 정리</b></p> <table border="1"> <tr> <td>갈래</td> <td>평시조, 정형시, 서정시</td> </tr> <tr> <td>성격</td> <td>풍류적, 전원적, 낭만적</td> </tr> <tr> <td>주제</td> <td>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td> </tr> <tr> <td>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td> </tr> </table>	갈래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주제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갈래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주제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함.</li> <li>• 의인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모습을 나타냄.</li> </ul>												
<p><b>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b></p> <table border="1"> <tr> <td>안분지족 (安分知足)</td> <td>▶</td> <td>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td> </tr> <tr> <td>안빈낙도 (安貧樂道)</td> <td>▶</td> <td>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td> </tr> <tr> <td>강호한정 (江湖閑情)</td> <td>▶</td> <td>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td> </tr> <tr> <td>음풍농월 (吟風弄月)</td> <td>▶</td> <td>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td> </tr> </table>	안분지족 (安分知足)	▶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	안빈낙도 (安貧樂道)	▶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강호한정 (江湖閑情)	▶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	음풍농월 (吟風弄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	<p><b>작품에 나타남 인간과 자연의 관계</b></p> <p style="text-align: center;"><b>‘나, 달, 청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과 ‘청풍’과 같은 자연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그려짐.</li> <li>•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경계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p>
안분지족 (安分知足)	▶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											
안빈낙도 (安貧樂道)	▶	가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강호한정 (江湖閑情)	▶	자연을 예찬하며 한가로이 즐김.											
음풍농월 (吟風弄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음.											

**시상 전개 방식**



**「십 년을 경영하여」와 「정읍사」에 공통적으로 쓰인 소재**



**시조 감례의 변과 양상**

**① 사실시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  
 귀 수들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청구영언』

**② 「십 년을 경영하여」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비교**

	십 년을 경영하여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b>공통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장, 4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li> <li>• 작가의 소망과 지향이 담김.</li> </ul>	
<b>차이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 사대부가 지음.</li> <li>• 내용을 추상적·관념적으로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진 형식임.</li> <li>• 작자층을 모름.</li> <li>•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돌하 노피곰 도드샤
-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 저재 ㉢녀러 신고요
- 어귀야 ㉣준 디롤 ㉤드디올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어느이다 ㉥노코시라
- 어귀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계양고등학교 (인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한 상황에서 희망하는 바가 드러나 있다.
- ② 불확실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물에 대한 감상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세속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초월적 대상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렴구의 반복으로 간절함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안정된 형태감을 보이고 있다.
- ③ 특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3음보가 반복되는 운율로 시조의 원형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청자가 일관되지 않고 변화를 보인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3. (가),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이 못 오던다 무슴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뺨고 성(城) 안헤 담 뺨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궤(櫃)를 노코 궤(櫃)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비목 외결새에 용(龍)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즈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업스랴.

- ① (나), (다)와 달리 <보기>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나), <보기>와 달리 (다)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다.
- ③ (다)는 <보기>와 달리 문제 해결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④ (다)와 <보기>는 (나)와 달리 조선 후기의 서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⑤ (다)와 <보기>는 모두 일상적 소재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광교고등학교 (경기)**

**4.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 ② (나)에는 안분지족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 ③ (다)에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어.
- ④ (다)에서 가슴에 창을 내는 행위를 통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염원을 보이고 있어.
- ⑤ (다)에는 나열을 통해 답답한 상황을 해학으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5. (나)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말이 없는 청산이요, 모양 없이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바람이요, 주인이 없는 밝은 달이로다.  
이 중에 병이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 ① 자연물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화자의 상황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화자의 몰아일체(物我一體)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④ 자연물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6. '㉠:㉡'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시어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태양을 의논(議論)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혈어진 성(成)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중략)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늘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① 달빛 : 밤
- ② 태양 : 달빛
- ③ 봄 : 꽃덤불
- ④ 분수 : 꽃덤불
- ⑤ 태양을 등진 곳 : 혈어진 성터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7. ㉠~㉢ 중 그 주체가 동일한 것을 모두 찾고, 주체가 누구(무엇)인지 밝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 기>

A~B를 채워 다음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형식: 주체가 동일한 것은 ( A )이며, 그 주체는 ( B )이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풍류적 삶이 나타나고 있다.
- ② 화자의 청빈한 삶이 나타나고 있다.
- ③ 화자는 안분지족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연친화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임아 임아 내 임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임아 임아 내 임아,  
그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입을 어이 할꼬.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나)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 신고요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광고고등학교 (경기)**

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노래는 정읍의 사람 하나가 행상을 떠난 후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처가 산에 올라 멀리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진흙물에 빠지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를 불렀다 한다.

- ① 화자는 '달'이 남편에게 닥칠 어둠과 위험을 없애주는 존재라고 믿고 있군.
- ② 남편이 행상인이라는 사실은 '저재'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
- ③ '즌 디'는 어두운 곳으로, 남편이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군.
- ④ '어느이다 노코시라'를 통해 남편이 힘든 짐을 놓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
- ⑤ '점그를세라'에서 화자는 남편 없이 살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염려하고 있어.

**광고고등학교 (경기)**

1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제시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대조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처한 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광고고등학교 (경기)**

11. (가), (나)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엇그제 젊었더니 허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 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늙어야 서러운 말씀 허자니 목을 맨다. 부모님이 낳으시고 이 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베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허더니,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月下)의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잇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어름 디되는 듯, 십오세 십육세 겨우 지나 아름다운 모습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허앗더니, 세월이 훌훌하고 조물이 시샘하여, 봄 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중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임이 사랑하라. 스스로 참고허니' 누구를 원망허리.  
<중략>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허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로 무슨 약수가 렷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의 비겨 셔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새 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의 서론 사람 수업다 허려니와, 박명 훈 흥안이야 날 가트니 또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여라.

-허난설헌, '규원가'

- ① (가)와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가)와 <보기>에는 모두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와 대상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보기>에는 화자의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 저재 녀러 신고요
- ㉢ 어귀야 준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 ㉣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훈 간 돌 훈 간에 청풍(淸風) 훈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1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까지 알려진 백제 유일의 작품이면서 한문으로 기록된 고대가요이다.
- ② 고려가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한 후렴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잘 형성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라 시상의 전개가 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④ 임은 화자의 소망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비극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과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13. (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의 전개가 일관되며 안정적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② 시적 화자는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는 세속의 삶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③ 공간적인 배경을 원근감 있도록 배치하고 그 공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규칙적인 형식과 일정한 음보율을 지닌 한국의 전통 시가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⑤ 특정 자연물을 끌고 들어와서 인간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달’은 천지신명의 상징이지만 (나)의 ‘달’은 자연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모두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 ⑤ 위 작품의 갈래가 발생한 시대별로 나열하면 (가)→(나)→(다)의 순서라 할 수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15. <보기>를 참고할 때, 글 (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고려사 악지’에서

- ① ㉠: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달’에게 빌고 있군.
- ② ㉡: ‘저재 녀려신고요’를 ‘시장에 가 계신가요.’로 해석한 것은, 남편 행상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③ ㉢: ‘즌 디’는 ‘진 곳’으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는 것을 진흙물을 디디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로군.
- ④ ㉣: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로 해석하는 것은, 임의 소원 성취를 위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달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임의 앞길에 불길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아내의 걱정을 고려할 때, ‘내 가는 디’를 ‘내 임이 가는 길’로 해석할 수 있겠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임아 임아 내 임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임아 임아 내 임아,  
그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임을 어이 할오.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나)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오 다롱디리  
㉢저재 녀려 신고요  
어기야 즌 디롤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디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오 다롱디리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다)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라)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대연고등학교 (부산)**

16. (다) 작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십 년을 경영하’였다는 것은 관직이나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떠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② ‘초려삼간’을 짓는다는 점에서 화자의 소박한 성품을 알 수 있다.
- ③ ‘달’과 ‘청풍’을 방 한 칸에 들인다는 것에서 자연을 소유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 ④ ‘돌려 두고 보리라’에서 종결 어미 ‘-리라’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징적 공간을 배경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17. <보기>를 참고하여 (라)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중인이나 평민들이 창작에 참여하여 생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면서 다양한 주제 다루게 되었다. 평시조와 다른 사설시조의 진술 방법은 웃음을 유발하여 삶의 좌절과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 ① 상투적 어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참신하고 독창적인 발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형식을 파괴하고 재미있는 발음이 이어지는 조흥구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을 기괴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수다스럽게 소재를 나열하고 상황을 과장함으로써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8.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다)시가의 형식적 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시가의 구조적 짜임은 (다)와 (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라)는 화자의 소망이 실현된다는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비롯된 '이별의 한(限)'은 (나)와 (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라)는 모두 '임의 부재(不在)'라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과의 영원한 이별을 탄식하며 체념하고 있다.
- ② 자신을 버린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나타난다.
- ③ 이별의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 ⑤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표의 '고금주'에 기록된 이 노래의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공후인은 조선(朝鮮)의 진졸(津卒) 광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것이다. 자고(子高)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지어 가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외치며 막았으나 다다르기도 전에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箜篌)를 타며 '공무도하(公無渡河)'의 노래를 지으니, 그 소리는 심히 구슬뿔다. 그의 아내는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麗玉)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용(麗容)에게 전하니 일컬어 공후인이라 한다.

- ① 이 노래의 원작자는 백수광부의 아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군.
- ② 자고는 자신이 목격한 사건과 들은 노래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군.
- ③ 자고의 아내 여옥은 이 노래를 완성하고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했군.
- ④ 여옥이 여용에게 전함으로써 이 노래는 집단적인 가요로 변화했겠군.
- ⑤ 노래의 핵심소재인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갖겠군.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하':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를 사용하여 자연물을 신성시하고 있다.
- ② ㉡ '머리곰': 강조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저재':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함으로써 남편의 행선지를 짐작하게 한다.
- ④ ㉣ '드디올세라': 특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염려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아으 다롱디리': 여음구 반복으로 운율감을 높이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2. (나)에서 시적화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연물과 장소를 찾아 각각 함축적 의미를 밝힌 후, 이와 관련된 화자의 소망에 대해 서술하시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3. (다)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 ② 일취월장(日就月將)
- ③ 물아일체(物我一體)
- ④ 음풍농월(吟風弄月)
- ⑤ 강호한정(江湖閑情)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려 신고요  
 어기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①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다)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있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호노라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4. (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 상황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기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같은 말을 반복하여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잘 드러내는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열거와 반복을 통한 수다스러움이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심각한 상황을 장난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절실한 심정이 약화되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5. (나)와 (다)에 대해 정리해 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	(다)
①	3장(章)의 기본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3장(章)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②	3(4), 4조 4음보의 율격이 잘 지켜지고 있다.	3(4), 4조 4음조의 율격이 대부분 변형되고 있다.
③	양반 사대부의 관념적인 가치관이 나타난다.	일상적인 생활 감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④	비유, 대조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고 있다.	소박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실현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현실에서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절망감이 드러난다.

**미사고등학교 (경기)**

**26. (가)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양이: 행상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내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그러한 마음을 달에 의탁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 ② 노랑이: 맞아.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소식을 알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달은 소망을 빌어 보는 한 가닥의 희망이었겠지.
- ③ 분홍이: 그래. 여러 가지 불안한 상상을 하며 남편을 걱정했을 아내를 생각하며 너무 안타까워. 그런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상 속의 온갖 나쁜 일들을 ‘즌 디’로 표현한 거야.
- ④ 초록이: ‘즌 디’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나야에 따라 화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
- ⑤ 다홍이: 결국 이 노래는 사랑하는 임이 곁에 없음에 대한 탄식과 체념이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해.

**미사고등학교 (경기)**

**27. (나)에 나타나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면?**

- ① 가마귀 검다하고 白鷺(백로)야 | 웃지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나
- ②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늘  
오리라.
- ③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허여라.  
디나간 후(後) | 면 애롭다 엇디허리.  
평싱애 고타 못홀 이리 이뿐인가 흐노라.
- ④ 막음이 어린 後(후) | 니 허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횡여 권가 흐노라.
- ⑤ 이 몸이 주거 주거 一百番(일백 번) 고쳐 주거,  
白骨(백골)이 塵土(진토)되여 녀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향)흐 一片丹心(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미사고등학교 (경기)**

**28.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나)와 (다)는 모두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준다.
- ㄴ. (나)와 (다)는 모두 3장, 4음보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 ㄷ. (나)와 (다)는 모두 작가가 지향하는 바가 나타나 있다.
- ㄹ. (다)는 (나)와 달리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미사고등학교 (경기)**

**29. (가)가 (나)가 속한 갈래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그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사용된 소재가 (나)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가)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데 (나)도 같은 특징을 보인다.
- ③ (가)의 여음구를 제외하면 (나)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 ④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의 종결 어미가 (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 ⑤ (가)는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나)가 속한 장르의 후기 작품들과 유사하다.

**미사고등학교 (경기)**

**30. (다)의 중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학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 ② 사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초장과 중장과의 차이를 보인다.
- ③ 웃음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미사고등학교 (경기)**

**31. ㉠과 <보기>의 ㉡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작은 것에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윤선도, '오우가'

- ① ㉠과 ㉡ 모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③ ㉡는 ㉠과 달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몰아일체(物我一體)의 대상으로, ㉡는 화자의 벗으로 나타나 있다.
- ⑤ ㉠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는 자연물 그대로를 의미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쟈재 녀러 신고요  
 어귀야 ㉣즌 디롤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논 디 ㉥점그롤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훈 간 둘 훈 간에 청풍(淸風) 훈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범서고등학교 (울산)**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뜻을 강화하는 말을 통해 시적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살리고 있다.
- ③ ㉢: 의구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가 바라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범서고등학교 (울산)

33. (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水面) 위에 떨어지고,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胡笛)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해맑은 밤 바람이 이마에 내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호수(湖水)는 한 포기 화려한 꽃밭이 되고,  
여윈 추억(追憶)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氷雪)이 눈부신 빛을 발하다.  
-김광균, 성호부근

- ① ㉠와 ㉡는 모두 인간의 일을 주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는 존엄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고, ㉡는 친화의 대상이다.
- ③ ㉠는 밤의 쓸쓸한 분위기를 심화하며, ㉡는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 ④ ㉠는 시적 화자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고, ㉡는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상이다.
- ⑤ ㉠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이입된 대상이고, ㉡는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34. (나)의 '초려 삼간'과 <보기>의 '마당'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보리타작

- ① '초려 삼간'은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마당'은 노동의 즐거움을 이해하는 공간이다.
- ② '초려 삼간'은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내포된 공간이고, '마당'은 삶의 애환을 타인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③ '초려 삼간'은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담긴 공간이고, '마당'은 빈곤한 삶에 대한 극복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 ④ '초려 삼간'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삶의 모습이 실현된 공간이고, '마당'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내적 갈등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초려 삼간'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절제가 반영된 공간이고, '마당'은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공간이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35. 작품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나)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먹은 후(後)에 / 바위 끝 물가에  
가솔꺾지 노니노라 /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윤선도, 만흥
- ② 내 삶이 담박(淡薄)한 중에 다만 남겨져 있는 것은 /  
몇 줄기 포도 덩굴과 노래 악보 한 권이로다. / 이 중에  
유신(有信)한 것은 풍월(風月)인가 흐노라  
-김수장
- ③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 산채(山菜)를  
맵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 우리는 초야(草野)  
에 묻혀시니 맵고 쓴 줄 몰라라.  
-이정신
- ④ 추강(秋江)에 밤이 드닌 물결이 차노매라. / 님시 드리  
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無心)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월산대군
- ⑤ 靑山(청산)은 엇데하야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 流水  
(유수)는 엇데하야 晝夜(주야)에 굶디 아니노고. / 우  
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상청) 호리라.  
-이항, 도산십이곡

**범서고등학교 (울산)**

36. 한국 문학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와 (나)의 형식상 관련성을 서술하시오.

**사상고등학교 (부산)**

37. (나)에 대한 학생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십 년을 경영하여'를 통해 화자가 오랫동안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초려 삼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군.
- ③ '나 혼 간 들 간에 청풍 혼 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들', '청풍', '강산'은 모두 자연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들일 디 업스니'에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군.

**사상고등학교 (부산)**

38.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가. 안빈낙도(安貧樂道) 나. 안분지족(安分知足) 다. 강호한정(江湖閑情) 라. 삼고초려(三顧草廬)
--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사상고등학교 (부산)**

39. (나)의 화자의 삶의 태도와 같은 것은?

- ① 뫇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논 췌(창)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②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뜯여  
보내고 그리논 情(정)은 나도 몰라 호노라.
- ④ 막음이 어린 후(後)이니 호논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논  
지논 님 부논 바람에 횡여 권가 호노라.
- ⑤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이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늘  
오리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 신고요  
 어기야 존 디를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임아 임아 내 임아,  
 물을 건너가지 마오.  
 임아 임아 내 임아,  
 그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입을 어이 할꼬.

**사상고등학교 (부산)**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자연을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어조에 변화를 주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사상고등학교 (부산)**

**41. (나)의 ‘달’과 <보기>의 ‘너’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자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을 다 비취니,  
 밤등의 광명(光明)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변인가 흐노라.

- ① ‘달’과 ‘너’는 모두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광명한 존재이다.
- ② ‘달’과 ‘너’는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 ③ ‘달’은 충만함을 드러내는 대상이고, ‘너’는 합일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달’은 화자가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이고, ‘너’는 다른 것들과 비교되는 대상이다.
- ⑤ ‘달’은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고, ‘너’는 화자가 친근함을 느끼는 대상이다.

**사상고등학교 (부산)**

**42. (가)의 ㉠-㉤에 대한 현대어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이높이 비치시라!
- ② ㉡: 시장에는 가지 마십시오!
- ③ ㉢: 디달까 두려워라!
- ④ ㉣: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
- ⑤ ㉤: 저물까 두려워라!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임과의 사별을 제재로 하고 있다.
- ④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구를 사용하여 흥을 돋우고 있다.
- ②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임에 대한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가 임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⑤ 화자의 임을 염려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45.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가)에서 찾아 현대어로 풀어 쓰시오.**

〈보기〉

(가)는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 )는/은 소망과 기원의 대상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밝음의 이미지이고 ( ㉡ )는/은 밝음과 대조되는 어둠의 이미지로 위험한 상황 등을 의미하고 있다.

- 끝 -

**제지 소개**

-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고난을 이겨 내고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룬 고전 소설
- 주인공 춘향과 몽룡 외에도 방자, 향단이, 월매, 변 사또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감.
- 적층 문학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인물 설정이나 이야기 전개가 다른 다양한 이본(異本)이 존재함.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초월적 사랑(계급적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 해방 사상)</li> <li>• 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li> <li>• 백성을 수탈하고 아녀자를 괴롭힌 탐관오리의 징벌</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원 설화,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임.</li> <li>•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되어 문체와 주제면에서 다양한 계층적 특성이 드러남.</li> </ul>

**「춘향전」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대목	표현상 특징
모든 수령 도망갈 제~칼집 쥐고 오 줌 누기.	4·4조, 4음의 운율감, 장면의 극대화, 해학과 풍자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물 마르다 목 들려라.	4·4조, 4음의 운율감, 해학적 표현
층암절벽 높은 바위~눈이 온들 변 하리까.	4·4조, 4음의 운율감, 한자어를 사용한 상투적 표현

**「춘향전」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징**

한의 정서	▶ 옥에 갇힌 춘향이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에서, 남녀 간 이별과 신분제 차별로 인한 한의 정서가 드러남.
풍자와 해학	▶ 어사출두 장면에서, 변 사또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주며 다양한 언어유희를 선보임.

**「춘향전」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	▶	지조와 정절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춘향과 몽룡	▶	인간 해방 사상
어사출두를 하여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몽룡	▶	권선징악

**변학도와 이몽룡에게 반영된 사회상**

변학도	부패한 지방 수령 →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
↓	
이몽룡	부패한 관리를 징벌하는 암행어사 → 관리들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존재

**몽룡이 지은 함시 분석**

‘금준미주’, ‘옥반가효’  
→ 수탈하는 관리의 사치

↓

‘천인혈’, ‘만성고’  
→ 수탈당하는 민중의 고통

▼

부패한 관리의 탐욕과 착취를 풍자  
→ 인간 존중 사상을 보여 줌.  
→ 작품 전개상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함.

**어사또의 출현에 대한 반응**

본관 사또	윤봉 영장
어사또의 출현을 전혀 짐작하지 못함. → 어리석은 인물	어사또의 출현을 짐작하고 이를 대비하려 함. → 본관의 어리석음을 더욱 부각하는 인물

**어사출두 장면의 표현상 특징**

대목	표현상 특징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의성어 활용 → 어사출두를 실감 나게 표현함.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 → 어사또가 백성들과 춘향을 구해 낼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외치는 소리에 ~ 아니 떨랴’, ‘동서문~ 진동하고’	과장법 활용 → 어사또의 위세를 강조함.

**춘향의 지조와 절개**

① 상징적 소재

‘층암절벽’ ‘높은 바위’	▶	높이 솟은 바위처럼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청송녹죽’ ‘푸른 나무’	▶	언제나 변치 않는 나무처럼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

② 춘향의 지조와 절개가 지닌 의미

표면적 의미	▶	유교적인 가치를 강조함.
이면적 의미	▶	지조를 지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임.

「춘향전」의 주제 의식

표면적 주제	▶	춘향은 몽룡에 대한 지조를 지켜 유교적 정절을 고수함.	▶	여성의 굳은 정절
이면적 주제	▶	춘향은 몽룡과 사랑을 이루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남.	▶	평등한 인간 존재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습시라고 하여라.”

①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닭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 영장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 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촉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중략)

본관 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 보소. 역졸을 불러 단속할 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서리, 역졸 거동 보소. 외 울망건 공단 모자 새 패랭이 놀러쓰고, 석 자 감발 새 짚신에 한삼(汗衫) 고의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 쥐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 역졸 거동 보소. 달 같은 마패를 햇 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 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青天)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뉘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라.”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좌수(座首) 별감(別監) 뉘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궤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 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 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르다 목 들 여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

“애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흰화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붕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 사또는 붕고파직이오.”

사대문(四大門)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고을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 줄새,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 삽내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 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 깬.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계양고등학교 (인천)**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낮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인 문체로 장면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2. 밑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봉 영감’은 죄 없는 ‘춘향이’를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군.
- ② 가렴주구와 학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 ③ ‘본관 사또’는 ‘이몽룡’의 정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죄를 부하인 운봉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인물이군.
- ④ ‘춘향’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신분질서가 엄존하는 사회에서 퇴기의 딸로 살아가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사과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어.
- ⑤ ‘이몽룡’이 ‘본관 사또’를 봉고파직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부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여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

**계양고등학교 (인천)**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작품 전개상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암행어사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과 어휘 도치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⑤ ㉤: 상투적인 한자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굳건함을 표현하고 있다.

**계양고등학교 (인천)**

**4. ㉡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표현상 특징을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 가는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 영장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돌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 영장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 자, 기름 고(膏) 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이 어려서 한시(漢詩)까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 영장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 사 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니,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 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A]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나)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 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 소리 청천(靑天)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옥방이 낮을 잃어,

“공형이오.”

등채로 휘닥딱.

“애고, 죽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휘닥딱.

“애고, 박 터졌네.”

좌수(座首) 별감(別監) 낮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 궤 잃고 강정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 지는 것은 거문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생쥐 눈 뜨듯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려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딱.

“애고, 나 죽네.”

(다)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쭙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운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 삽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官長)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 어사또 들 으시오.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 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열녀춘향수절가

**대연고등학교 (부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시대를 언급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대화와 내적 독백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양상을 암시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인의 비범함이 노출되고 있다.
- ② 화자를 통해 당대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 ③ 탐관오리의 수탈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사에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7. 밑줄에 나타난 인물과 상황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을 숨긴 몽룡이 허장성세(虛張聲勢) 부리는 장면에서 긴장되는군.
- ② 암행어사 출두하자 도망가는 사람들로 야단법석(野壇法席)이 났군.
- ③ 어사또는 장원급제한 실력으로 시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 내렸군.
- ④ 가렴주구(苛斂誅求)하던 본관 사또가 두려움에 떠는 장면은 통쾌하군.
- 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정말 대단하군.

**대연고등학교 (부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 비유를 통해 불의에서 정의로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③ ㉢: 짧고 강렬한 대구를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 인물들의 동작을 희화화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⑤ ㉣: 언어 도치를 이용하여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9. <보기>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다)와 연관 지어 주제를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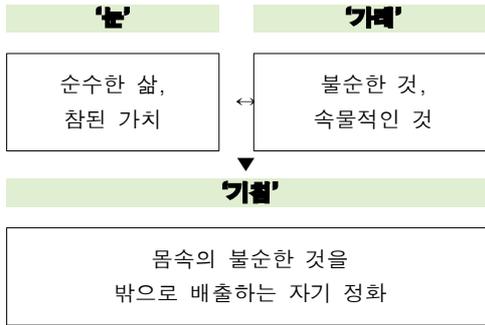
〈보 기〉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모께 뵈오니 성은(聖恩)을 못 잊어 하시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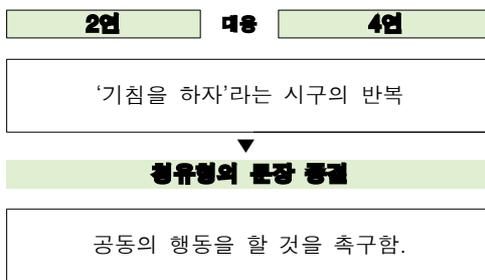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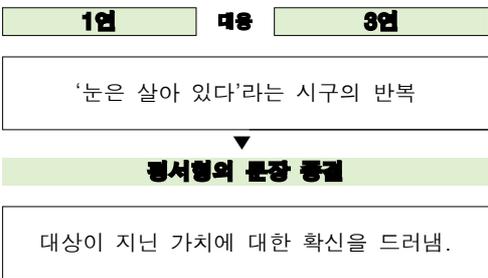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성격	의지적, 참여적
주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적 언어와 선명한 대응 구조, 청유형의 문장 사용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li> <li>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을 무기력하고 부정한 세계와 대립시킴.</li> </ul>

**'눈', '가래', '기침'의 상징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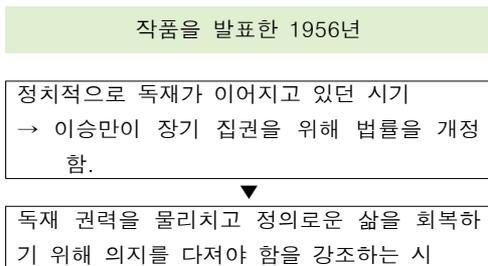


**「눈」의 표현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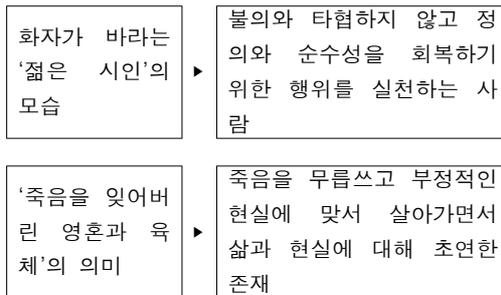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눈」 해석**

① 사회-문화적 배경



②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작품 해석



**「꺼비잡 리」 분석**

① 「꺼비잡 리」의 구성

② 「꺼비잡 리」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풍자적
주제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풍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임.</li> </ul>

5-(3) 눈 (김수영)

발단	이인국이 과거를 회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후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배경으로 함.</li> </ul>
전개	일제 말에 이인국은 친일 행위로 득세함.	
위기	광복 후 친일 행적이 탄로나 투옥됨.	
절정	소련 장교의 흑을 없애 주고 위기를 모면함.	
결말	월남 이후 미국인의 도움으로 사회 지도층이 되어 미국에 건너갈 일을 꿈꿈.	

**「눈」의 화자와 「끼떡땀 리」의 이인국 비교**

「눈」의 화자	이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움에 처해도 양심을 속이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사람</li> <li>•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li> <li>•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눈'

**개포고등학교 (서울)**

1.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시어를 위 시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주의와 독재를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문학은 그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형성된 다양한 가치관을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하여 형상화해 왔다. 이 작품에서 (     )는 /은 한국 근현대사의 오욕을 저항적으로 넘어서는 줄기찬 문학 정신의 지향점을 상징하기도 한다.

**개포고등학교 (서울)**

2. 위 시에서 반복되는 시구의 문장 종결형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반복되는 시구	문장 종결형	반복의 효과
눈은 살아 있다.	→ 평서형 →	(나)
기침을 하자	(가)	(다)

**개포고등학교 (서울)**

3.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화자는 '젊은 시인'에게 '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촉구한다.
- ② 화자는 '기침'을 하기 위하여 '새벽'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
- ③ 화자는 마당에 쌓은 눈을 바라보며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다.
- ④ '기침'은 '눈'이 지닌 순수한 생명력을 실현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 ⑤ '눈'은 현실 속에서 불의를 거부하면서 살아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개포고등학교 (서울)**

4. 위 시를 해석하기 위한 토론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가래'와 '기침'은 전후 대응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 ② '젊은 시인'은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 ③ 화자는 왜 하필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라고 했을까?
- ④ '새벽'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 ⑤ '눈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눈은 살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포고등학교 (서울)

5. 위 시의 1연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율이 형성된 것은?

- ①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떠나버린 벗도 있다.  
-신석정, '꽃땀'

- ②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 임 무덤가에 금잔디  
-김소월, '금잔디'

- ③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④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윤동주, '별 헤는 밤'

- 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신경림, '목계 장터'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개포고등학교 (서울)

6. <보기>는 위 시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보기>

...깨끗한 것을 지향하는 시인의 강인한 정신— 아마 내가 이 시에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수영 시 중의 하나인 이 시의 내용은 때 묻지 않고 새벽까지 살아 있는 눈을 향해 기침을 하자는 젊은 시인에의 권유가 전부이다. 어느 교수의 해석처럼 “살아 있다는 신호의 전달”과 일상의 너절함을 다 토해내고 눈처럼 깨끗한 것, 살아 있는 것이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시인을 찾아서 1>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개포고등학교 (서울)

7. 위 시의 '눈'과 <보기>의 '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어느 먼-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천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衣裳)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우에 고이 서리다.

-김광균, '설야'

- ① 위 시의 '눈'과 <보기>의 '눈'은 모두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 ② 위 시의 '눈'은 <보기>의 '눈'과 달리 색채 대비를 보이고 있다.
- ③ 위 시의 '눈'은 <보기>의 '눈'과 달리 감각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보기>의 '눈'은 위 시의 '눈'과 달리 서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⑤ <보기>의 '눈'은 위 시의 '눈'과 달리 정적(靜的)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포고등학교 (서울)**

8. <보기>는 위 시를 지은 시인의 산문 중 일부이다. 이와 관련이 깊은 위 시의 특징은?

〈보기〉

.....지극히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말이지만 나는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산문을 도입하고 있고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지만,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하는 혼잣말이다. 이 말은 밖에 대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 할 수 있고, 그 때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간신히 성립된다.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 ① 일상적인 소재와 세심한 운율적 배열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을 갈망하는 보편적 욕구를 주고 있다.
- ③ 부정적인 현실의 압담함을 극복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
- ④ 현실 참여적 문학을 강조하면서도 시적 언어의 새로움과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⑤ 관습적인 어법에서 탈피하고 제도권 내의 규범, 가치 같은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 '눈'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9. ㉠의 시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 ② 일상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차가운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 ④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는 구체적 사물이다.
- ⑤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0.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층적 반복으로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정화의 행위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 ③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시간의 경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청유형 시구의 반복으로 공동체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하강 이미지를 사용하여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 <<전체 정답>>

### 4-(2)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1.② 2.④ 3.① 4.① 5.㉠: 출처, ㉡: 과장 6.② 7.② 8.④ 9.④ 10.⑤ 11.③ 12.-글쓰기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짐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나 책임감이 약해짐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음. 13.③ 14.① 15.⑤

### 4-(3) 세상을 바꾸는 토론

1.⑤ 2.우리 나라도 의무 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3.① 4.㉠: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의무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 5.권위지나 전문가의 견해 6.⑤ 7.㉠: 입론 ㉡: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8.㉠: 문제의 심각성 ㉢: 실행 가능성 ㉣: 이익 9.⑤ 10.② 11.① 12.④ 13.⑤ 14.㉠: 협력적 ㉡: 경쟁적 15.④ 16.㉠: 말의 속도, 고저, 크기 등 ㉢: 손짓, 표정 등

### 5-(1) 정음사 / 십 년을 경영하여

1.① 2.③ 3.② 4.① 5.③ 6.② 7.주체가 동일한 것은 (㉠,㉡,㉢)이며, 그 주체는 ( 임 )이다. 8.⑤ 9.⑤ 10.② 11.⑤ 12.② 13.① 14.② 15.④ 16.③ 17.⑤ 18.① 19.④ 20.④ 21.⑤ 22. 둘: 기원의 대상 / 준 디: 위험한 곳 / 임이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길 기원함. 23.② 24.⑤ 25.③ 26.⑤ 27.② 28.⑤ 29.③ 30.① 31.④ 32.③ 33.④ 34.① 35.⑤ 36.(가)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라는 정형성을 갖춰 정형시인 (나)의 원형으로 봄 37.⑤ 38.③ 39.⑤ 40.③ 41.① 42.② 43.① 44.③ 45.㉠: 둘 ㉡: 준 디

### 5-(2) 춘향전

1.④ 2.② 3.① 4.운율 형성, 장면 극대화, 편집자적 논평 5.① 6.④ 7.① 8.⑤ 9.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 10.② 11.⑤ 12.④ 13.③ 14.춘향과 몽룡의 재회 15.⑤ 16.④ 17.① 18.① 19.③ 20.고통 받는 백성과 춘향에게 환한 빛처럼 구원을 안겨줌. 21.③ 22.② 23.① 24.③ 25.적층 26.⑤ 27.② 28.② 29.⑤ 30.③ 31.② 32.③ 33.④ 34.④ 35.③ 36.⑤ 37.④ 38.⑤ 39.④ 40.㉠: 편집자적 논평, ㉡: 반어적 41.① 42.② 43.② 44.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나무

### 5-(3) 눈 (김수영)

1.기침 2.(가) 청유형 (나) 대상이 지닌 가치에 대한 확신 (다) 행동 촉구 3.② 4.⑤ 5.② 6.① 7.④ 8.④ 9.② 10.⑤ 11.무기력한 존재, 불의에 맞서는 존재 12.② 13.③ 14.① 15.⑤ 16.② 17.④ 18.④ 19.① 20.순수해지고 싶다. 21.② 22.참여 23.③ 24.② 25.⑤ 26.④

### 6-(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